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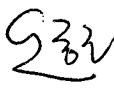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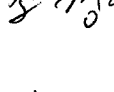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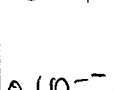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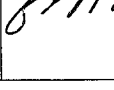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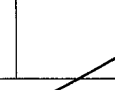
개최일시	2014.1.14(화) 15:30~16:00	회의장소	진관 휴게실
참석자 (8명)	오종근(교무처장), 신경식(기획처장), 조경원(총무처장), 신하운(학생처장), 이명휘(재무처장), 서미옥(예산팀장), 조수민(대학원학생회장), 유혜련(외부전문가)		
불참자 (5명)	성희연(총학생회장), 강다영(총부학생회장), 고은희(건강과학대학대표), 강다영(사범대학대표), 유미림(조형예술대학회장)		
안건	등록금 심의를 위한 예산안 검토		
내 용	<p>- 회의 개시 전 학생위원 2인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다.</p> <p>- 학생위원들은 외부 관련 전문가 위원(이하 외부전문가)의 위촉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다. 또한 학교위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결권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학생위원들의 동의 없이도 의결 가능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다. 이에 외부 전문가의 의결권 박탈 또는 학생측이 선임한 전문가 위원 1인의 추가 위촉을 요구하다.</p> <p>- 학교위원은 본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되었고, 이미 세 차례 위원회가 진행된 지금 시점에서 구성 방법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절차나 시기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다.</p> <p>- 학생위원 2인은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후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하다.</p> <p>□ 개회 위원장은, 과반이 참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총 위원 13명 중 8명 참석을 확인 후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모임을 시작하다.</p> <p>□ 회의내용 3차 논의 안건은 2014학년도 예산안 질의응답이었으나 안건 논의에 앞서 학생위원들이 문제로 제기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p>		

1. 위원회 구성에 관한 입장

- 위원장이 대학원 학생위원의 의견을 묻다.
- 대학원 학생위원은 가능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안에서 논의를 하고자 했으며, 학부 학생위원들이 문제로 제기 한 외부전문가의 중립성 문제에는 동의한다고 말하다.
- 대학원 학생위원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대학원의 입장을 이야기하다. 1차 회의가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참석 요청 연락을 받았고, 이에 대학원에 대한 학교 측의 존중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다. 또한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학생이자 연구자인 만큼 연구 환경, 연구 공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위원은 대표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현재 학생위원 6인 중 대학원 위원은 1인이며, 위원 1인이 대학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특히 일반대학원 대표로서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다.
- 대학원 학생위원은 제한된 위원 수로 인해 실질적으로 논의 과정에서 대학원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다.
- 학교위원은 대학원 위원 수가 많지는 않으나 학생위원으로서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대학원의 연구 환경이나 장학금 확충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말하다.
- 학교위원은 1차 회의 일정 통보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실수라고 시인하다.
- 학교위원은 대학원 학생위원의 수에 대해서 본교의 학부 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재적학생 인원수가 6:4 임을 고려하면, 일반대학원 대표 1인, 전문, 특수대학원 대표 1인, 도합 2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나, 특수, 전문대학원에는 선출된 대표가 없어 현실적으로 전문, 특수대학원 위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하다. 또한 대학의 공공적 성격이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다. 그럼에도 대학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심의회에 특수, 전문 대학원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문제를 숙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하다.

2. 2014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

- 위원장이 오늘 예정된 안건인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대학원 학생위원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는지 묻다.
- 대학원 학생위원은 3차 회의 때 진행하기로 예정된 예산안에 대해

	<p>여 사전에 재무처 예산팀을 방문하여 답변을 들은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더 이상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말하다.</p> <p>- 오늘 진행하기로 한 예산안 논의에 대해 더 이상 진행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 후 다음 회의 안건을 정하다.</p> <p>3. 다음 회의 내용</p> <p>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대한 학교측 안과 학생측 안 제시 후 논의</p> <p>□ 폐회</p> <p>위원장은 4차 위원회를 1월 17일(금)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확인한 후 4시에 폐회를 선언하다.</p>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4년 1월 14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오종근		위 원	성희연	불참
	위 원	신경식		위 원	강다영 (총부학생회장)	불참
	위 원	조경원		위 원	고은희	불참
	위 원	신하윤		위 원	강다영 (사범대학대표)	불참
	위 원	이명휘		위 원	유미림	불참
	위 원	서미옥		위 원	조수민	
작성 자	소 속 : 재 무 처			성 명 : 서 미 옥(인) 